

**11월 18일(월) / 고린도전서 13-16장**

▶**내용요약:** 13장은 일반적으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이 모든 은사의 기초이며 동시에 최고의 은사라고 전하면서 사랑의 특징들을 열거한다. 14장은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예배 시 방언과 예언은 품위와 질서 있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15장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의하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교훈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순서,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을 전하면서 부활한 육체의 본질과 부활 시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승리를 교훈한다. 16장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할 것을 권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한 권면과 당부, 그리고 문안인사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질문:**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무엇인가?(13장)

▶**생각하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진정 기쁜 소식인가?

**11월 21일(목) / 고린도후서 7-9장**

▶**내용요약:** 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결하게 살 것을 당부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관하여 권면하였던 일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된 것에 대하여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전한다. 8장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연보하였던 마케도니아 교회의 손길을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에 이 일을 전하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권면한다. 이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할 사람으로 디도와 형제들을 추천한다. 9장은 바울은 계속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당부하면서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고 권면한다.

▶**질문:** “그가 흠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 )가 영원토록 있느니라”(9장)

▶**생각하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자위하여 동참하고 있는가?

**11월 24일(일) / 갈라디아서 4-6장**

▶**내용요약:** 4장은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서 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한다.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어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과 같이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5장은 죄의 멍에를 매게 하는 율법과 달리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을 주었으므로 성도 간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린다고

**11월 19일(화) / 고린도후서 1-3장**

▶**내용요약:**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이다. 1장은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전하며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알리고 고린도에 갈 계획이 변경된 것에 관하여 전한다. 2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실수한 자들을 사랑으로 관용할 것을 권면한다. 이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하여 고귀함을 전한다. 3장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편지라고 시작하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피력한다.

▶**질문:**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생각하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11월 22일(금) / 고린도후서 10-13장**

▶**내용요약:** 10장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일들의 근원은 사도직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한계 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음을 자랑함으로써 사명의 정당성을 변호한다. 11장은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자신은 낮은 태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피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와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과 수고를 간증한다. 12장은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사도로서의 계획을 전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권면한다. 13장은 바울은 3차 방문을 기약하면서 회개할 것을 당부하며 문안과 축도로 글을 마무리한다.

▶**질문:** 복음 전하는 바울의 열심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10장)

▶**생각하기:** 사도직을 문제 삼는 고린도교회임에도 계속되는 바울의 사랑을 보면서 외면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가?

함으로서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비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을 열거하며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삶 가운데 이루어 내야 함을 촉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6장은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11월 20일(수) / 고린도후서 4-6장**

▶**내용요약:** 4장은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담겨있다고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5장은 바울은 성도들을 속사람과 겉 사람,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으로 비유하면서 행함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경계하면서 연약한 육체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한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화복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복하라고 당부한다. 6장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당한 고난을 피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질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4장)

▶**생각하기:** 화복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 직분을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11월 23일(토) / 갈라디아서 1-3장**

▶**내용요약:**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외에 관하여 정의하는 바울의 글이다. 1장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책망한 후 자신의 과거를 진술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피력한다. 2장은 자신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준한 사실이며 베드로는 할레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직무를 맡게 되었음을 전하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이신득의)는 교리를 설명한다. 3장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어리석다고 책망하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이후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라고 복음을 설명한다.

▶**질문:**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는 무엇인가?(3장)

▶**생각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이신득의 교리가 나에게 주는 유익함은 무엇일까?

들은 온유함으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할례의 무익함을 설명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득의를 거듭 강조한다.

▶**질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5장)

▶**생각하기:**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나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